

“올가을 광주 총장축제서 ‘추억의 동화’ 만끽하세요”

동구, 10월15일부터 5일간 개최 기본계획 마쳐...성공 개최 ‘첫발’ ‘동화처럼 행복’...즐길거리 다채 “특별한 가을 축제에 시민을 초대”

광주 총장축제가 ‘추억의 동화’를 주제로, 오는 10월 금남로와 중장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지는 다채로운 볼거리는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오는 10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열리는 ‘제22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의 기본 계획수립을 최근 마무리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8일 밝혔다.

200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22회를 맞은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는 세대와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예술축제로 성장했다. 올해 축제 주제는 ‘추억의 동화’다.

동구는 이번 ‘추억의 동화’를 시작으로 해마다 ‘추억의 ○○’ 시리즈를 선보여 축제의 지속가능성과 차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주민 자치회, 통장단,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주제를 선정했다.

부제는 ‘동화처럼 행복한 우리 이야기’로, 축제는 ‘우리 기억 속에서 잠들었던 이야기들이 이 가을, 총장로를 따라 온 은한 빛을 머금고 깨어난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먼저 축제 첫날인 10월15일은 개막쇼 ‘추억의 동화’가 금남로 메인 무대에서 펼쳐진다. 사랑,

모험, 소망, 상상이 가득한 추억 속 동화를 환상적인 무대로 재현한다.

둘째 날인 16일은 ‘아시아 문화의 날’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광주의 상징성을 반영해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해 선보인다.

17일 ‘가족의 날’에는 총장 병아리 축제, 청소년 버스킹, 총장 발광나이트 ‘마스크 파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18일과 19일은 ‘행진의 날’로, 5개 자치구 대동놀이, 초대형 바둑대회, 라이트업 퍼레이드, 불꽃놀이, 추억의 동화 대행진, 이색 자전거레이싱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추억의 동화 대행진에는 동구 13개 행정동이 참여해 마을 이야기에 동화를 접목, 색다른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퍼레이드에는 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참

여해 안무와 연출을 도울 예정이다. 축제의 마지막밤은 불꽃과 점단 드론 기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파이어 드론쇼로 장식된다.

또한 축제 기간 중에는 ‘제4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이 ACC 하늘마당과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동시에 열린다. 전 세계 16개국 32개 팀이 참가하는 국제 버스킹 경연대회에서는 총 4천만 원의 상금이 걸렸다. 특히 본선 진출 팀에게 음원 유통 지원도 제공해 뮤지션들이 더 많은 대중에게 자신의 음악을 알릴 기회를 마련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10월, 동화속 한 장면처럼 펼쳐질 특별한 축제에 광주 시민과 방문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시·청각 장애인 전용 TV 유상보급 서구, 27일까지 대상자 접수 받아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역 시·청각 장애인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전용 TV 유상 보급에 나선다.

8일 서구는 9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시·청각 장애인용 TV 유상보급’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어 방송, 자막 분리, 화면 확대 등의 특화된 기능이 탑재된 TV를 보급해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눈·귀 상이등급자 중 무상 보급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아닌 자로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보급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 접속하면 신청과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금 5만원으로 오는 7월부터 TV를 순차적으로 보급받을 수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TV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 매개체”라며 “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예비 고교생 위한 ‘입시 설명회’ 남구, 선착순 100명 모집

광주광역시 남구가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예비 고등학생을 위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8일 남구에 따르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대비를 위한 입시 설명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현재 광주 인성고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형태 광주광역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상담교사는 이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및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성공적인 대입 전략 수립과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선택에 관한 진학·진로의 방향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입시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 고교생 및 학부모는 9일부터 광주 남구 문화교육행사 앱 또는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시 설명회와 관련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예비 고교생들이 대입 진학과 관련한 준비를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입시 설명회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

동구, ‘빛나는 아이나라’ 조성 86억원 투입...이달 말 준공

광주광역시 금남 지하상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서면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가족 단위 방문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동구는 금남 지하상가 2공구에 조성 중인 ‘빛나는 아이나라’가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빛나는 아이나라’는 지난 2023년부터 사업비 86억원을 투입해 오랜기간 공실로 방치돼 있던 지하상가 39개 점포를 리모델링해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상업 중심 공간이었던 지하상가를 어린이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총면적 약 1600㎡(484평) 규모의 공간은 크게 예술창작소와 동화공작소로 구성됐으며, 시그니처 공간인 △빛나는 갤러리와 체험 놀이공간인 △빛나는 클래스△놀이공간 △나만의 동화 만들기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용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만 4~11세)까지이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와 시설을 세심하게 설계했다. 보호자를 위한 휴게 공간도 함께 마련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

특히 AI(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기술을 접목한 예술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감성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동시에 교육적 효과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는 앞서 지난해 12월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운영 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의 연계 방안을 협의하며 시너지 창출을 도모했으며, 지난 5월 ‘하우-펀(HOW-FUN)’ 어린이날 행사 주간에 체험 프로그램 일부를 1000여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미리 선보였다.

임택 동구청장은 “‘빛나는 아이나라’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놀이 배움터이자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인문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광주 광산구가 지난 5일 임곡 파크골프장에서 개장식을 열고 정식 운영에 돌입했다.

광산구 제공

광산구, 임곡 파크골프장 정식 운영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지난 5일 임곡 파크골프장에서 개장식을 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임곡 파크골프장은 광산구의 두 번째 지역 파크골프장으로, 지난 2021년 지역 어르신들의 시설 확장 건의에 따라 총 5

억 원을 투입해 8424㎡에 9홀 규모로 조성됐다.

개장식은 ‘자연 속 힐링 파크골프’를 주제로 열렸으며, △제막식 △기념 시타 △파크골프 하기 좋은 날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2부에는 광산 파크골프 하

기 좋은 날을 개장식 기념 임곡 파크골프 하기 좋은 날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친선대회를 개최했다.

광산 파크골프 하기 좋은 날은 구민 체험형 정책 중 하나로 지난 5월부터 운영해 매주 목요일 광산구민이 파크골프를 매개로 어울리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상철 기자

북구, ‘광융합무역촉진단’ 역대 최대 수출계약 성과 달성

하노이 및 방콕 등 도시서 간담회 MOU 체결 등 총 1750만달러 계약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역 광융합산업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파견한 ‘2025 북구 광융합무역촉진단’이 총 1750만달러 규모의 수출성과를 거두며 실질적인 결실을 맺었다.

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이번 무역촉진단은 북구청과 지역의 기업 관계자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6박 8일간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을 방문해 현지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 수출상담회, 현장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6월 3일 대신 직후인 6월 4일부터 태국 일정에 합류해 현지 직원에 직접 나섰으며 북구의회 기대서, 주순일 의원에 동행해 교류 활동을 뒷받침했다.

‘광융합무역촉진단’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성장 기반 확



보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는 광통신, 광의료, AI 기반 광융합기술 등 3개 분야 12개 기업이 참가했다.

올해는 스마트도시와 스마트팜 확대로 광융합 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과 태국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의 산업 분야와 수요 바이어 유형 등을 사전 분석해 맞춤형 매칭을 진행했다.

현지 일정에서는 △기관·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방문 △현지 공공기관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됐다. 특히 태국 디지털경제진흥원(DEPA)과의 업무협약(MOU

)을 통해 지역기업인 트로닉스와 아이오라이트의 스마트도시 실증 구축 참여 지원과 4차 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태국 기업인 ‘서미트’의 투자를 받아 합작법인을 설립한 북구 소재 기업 ‘아이오솔루션’의 현지 공장을 방문해 해외 진출 기업의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촉진단의 주요성과는 △680만달러 규모의 실계약 체결 △1070만달러 상당의 수출 약정계약 △370만 달러 규모의 기업 간 MOU 체결 등이며 참여한 12개 기업 모두 현지 기업과 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며 내실 있는 실적을 거뒀다.

문인 북구청장은 “광융합무역촉진단은 경쟁력 있는 북구 소재 기업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지역 기업이 활약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